

홍준표 “반도체 대기업과 유치 협상 중”

취임 100일 앞두고 기자회견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6일 “대구 미래 산업이 될 신수종 산업을 유치하고자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8일 취임 100일을 앞둔 홍 시장은 6일 시청 동인청사 기자회견을 찾아 기자회견 담화를 열고 “지난 100일은 대구 재건을 위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낼 각오로 치열하고 씩 없이 달려온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반도체 산업 등 신수종 산업과 관련해 대기업과 유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메모리 분야는 중소기업 협업 체제여서 대형 장치 산업이 아니다. 경북대와 디지스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산하 공공기관 11개로 통폐합 세금 낭비 위원회 54개 폐지 티웨이항공·이케이 등 대구로 재정혁신 위해 씩 없이 달려와

검토 중”이라며 “미래 가치 산업인 신수종 산업의 유치를 위해 2개월 전부터 대기업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100일간의 시정 개혁 성과와 과제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우선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18개 산하 공공기관을 11개로 통폐합하고 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켜 ‘알 박기’ 인사를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임원 연봉



홍준표 대구시장

상한제와 퇴직금 미지급 제도를 전격 도입한 점 등도 성과로 꼽았다.

홍 시장은 세금을 낮추고 책임 행정을 저해하는 위원회와 민간 위탁 사무도 대구모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199개 위원회 중 법령과 조례 상임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모두 폐지하는 등 54개 위원회를 폐지했다. 민간 위탁 사무도 114개 중 33개를 통·폐합하거나 공공기관으로 전환해 책임 행정과 효율성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특별·광역시 최 최저 채무 비율을 달성하고 고강도 재정 혁신안을 마련한 점도 제시했다. 임기 내 채무 1조5천억원 상한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기금과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한편, 미활용 공유 재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전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핵심 정책들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하고자 특별법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위기에 처했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예정 부지 일부 매각으로 돌파구를 찾았다고 했다.

기피 시설인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해 지역 간 유치 경쟁까지 이끌어낸 점 등도 성과를 제시했다. 글로벌 내륙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금강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신천 고품격 수변공원화 계획 수립, 티웨이항공·이케이 등 유력 기업 투자 유치 등도 내세웠다.

홍 시장은 또 “K-2 군공항 및 도심 군부대, 대구시청,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경북대병원 등 20여 곳이 이전하면 엄청난 규모의 이전 후적지가 생길 것이다. 대구 최대 50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향후 20년 동안 도복·건축공사만 60조원가량 되고, 공항 이전과 공항산단 등까지 더하면 1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며 “대구 전체 그림을 새로 그리는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시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준공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면서도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완성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입을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현 기자 shjang@maeil.com

“北 무모한 도발 한일 엄정 대응”

尹대통령-기시다 日총리 통화 안보 문제 등 수시로 소통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6시까지 2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이 협력해 엄정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양 정상은 지난달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양국 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양 정상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도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다음 임지로 진행하던 로널드 레이건호(미 핵추진 항공모함)가 어젯밤 8시쯤 우리 수역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분부터 6시 23분까지 북한이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SRBM은 비행거리 350여 km, 고도 80여km, 속도 약 마하 5(음속 5배)였고 두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800여km, 고도 60여km, 속도 약 마하 6으로 탐지됐다.

한편 북한 항공기 12대가 6일 오후 2시쯤 우리 군의 특별 감시선 주변에서 시위성 편대비행을 펼쳐 우리 군 항공기 30대가 격격해 대응했다.

군은 북한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가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군의 시위성 편대비행과 우리 군의 대응 상황은 1시간여가량 지속됐다. 북한의 이례적인 시위성 편대비행은 최근 한미 연합 대응사격과 한미일 연합훈련 등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추정된다.

이호준 기자 hoper@maeil.com

이준석 가치관 ‘기각’...정진석 비대위 ‘인정’

얕던李 빠졌다 한숨 돌린 국힘

법원 “실체적·절차적 하자 없어” 이 전 대표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與 전대 준비 탄력…내년 초 유력

집권당 내용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원이 6일 현재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5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른바 ‘개입식 효과’조차 못 보고 지지율 부진이 허덕인 여권엔 얕던 이가 빠진 것이 상의 호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양급의 수석대변인(대구 북구갑)은 “국민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와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제 길을 가겠다”며 여론전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명운을 법원이 결정하는 참담한 상황이 종결됐다”며 “그간 미뒀던 조직 강화 활동은 물론 정당대회 준비에도 탄력이 붙을



국민의힘 정진석(오른쪽)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것”이라고 했다.

정당대회 시기는 정국교화가 끝난 뒤 내년 초 개최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집권당이 임시 지도부 체제를 길게 끌고 가는 것도 부담이지만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이 주요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정국교화 도중 정당

대회를 치르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대 일정은 비대위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하지만, 결국 정국교화가 끝나고 전대가 시작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역시 “정국교화 내내, 올해 안에 전대를 치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하며 내년 초 개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유광준 기자 june@maeil.com

55 DGB 55th ANNIVERSARY 1967 - 2022. DGB대우은행 ()을 위해 금융을 할까? A. QR code and text about DGB's 55th anniversary and financial services.

한류 거점 글로벌 혁신특구 메타버스 수도 경북 밀그림

이철우 신산업 육성 계획 발표
인문+디지털 지방시대 주도
가상도민 1천만명 유치 목표
전국 생산유발효과 1조 기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도청 브리핑을 열어 메타버스 신산업 육성 종합대책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예상 파급효과 1조원 규모의 메타버스 신산업 육성 대책을 내놴다. 한류 콘텐츠 거점과 메타버스 혁신특구를 통해 관련 제조업·콘텐츠·전문가를 키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인문·디지털 융합 경북형 메타버스로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세계 대표 메타버스 선도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인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최성광(브이알크루 대표) 메타경북 민관합동 추진위원장, 유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류 메타버스 거점' 조성을 위해 ▷한류 통합 커뮤니케이션 센터 ▷한류 메타버스 월드 ▷메타버스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특구'를 조성해 국내 메타버스 융합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구에는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한다. 정부 '글로벌 혁신특구 정책'과 연계해 규제특례·조세감면·정주여건 등 지원 인프라를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국제) 대학생들과 '청년 메타버스 창작 페스티벌' 개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독일 프라

운호퍼 연구소와 기술 협력 ▷메타버스와 공감을 결합한 메타버스 특화 플랫폼 '메타포트' 구축 등도 추진한다.

경북도는 2026년까지 ▷메타버스 육성 거점 5곳 구축 ▷R&D 콘텐츠 150건 개발 ▷마케팅·인증·실증 등 기업 1천615개사 지원 ▷크리에이터 등 인력 6천260명 양성 ▷가상도민(메타인구) 1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다.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때 전국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 1조12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천586억원, 취업유발효과 7천208명 등이 기대된다.

지역 메타버스 중심도시가 될 구미시의 김장호 시장은 "디바이스부터 콘텐츠 제작, 인재 양성, 기업 육성까지 원스톱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구미시가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무한 경쟁에 직면한 경북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메타버스 시대 주도권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현 기자 hjh@maeil.com

대구TP-디자인진흥원, 제 갈 길 간다

이사회 정족수 부족 통합안 무산
진흥원은 市와 결별, 경쟁 관계로

'통합 대구테크노파크(이하 대구TP)' 출범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구TP에 흡수 예정이던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독자생존으로 방향을 틀었다.

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곧 행정안전부에 디자인진흥원 출자·출연기관 해지 신청을 할 것으로 파악됐다. 디자인진흥원 당연직 이사장인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당연직 이사인 대구시 경제국장도 조만간 사퇴할 예정이다.

디자인진흥원이 대구TP 흡수통합에서 독자생존으로 선회하게 된 이유는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안이 가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디자인진흥원은 지난달 6

일 이사회를 열어 법인 해산안을 심사했으나 산업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 측 반대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지난달 26일에도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산업부 반대가 여전해 취소됐다.

산업부는 디자인진흥원이 해산되면 지역 디자인 산업 기능이 축소되고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했다. 대구시의 무리한 법인 해산 추진을 승인할 경우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자인진흥원은 산업부와 대구시가 결별로 최종 합의되면 새 이사진을 구성할 예정이다.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산업부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대구시의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구시는 사업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110억원가량을 지원했다.

대구TP도 정관에 디자인사업 수행 내용을 추가하고 최종 승인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향후 지역사업 수주를 두고 디자인진흥원과 '결코려운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당장 대구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디자인진흥원의 고용승계도 문제가 된다. 국비가 더 투입되거나 진흥원 자체 사업을 해야 현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별도 법인으로 남아도 기존 사업 규모만 유지하면 구조조정은 필요없다. 신규 사업 확보 계획을 짜고 있다"고 했다.

채원영 기자 chae10@maeil.com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에 김광목

조경선 공보관 직무대리

대구시가 한시지구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하반기 수시인사를 이달 7일자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의회가 지난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인사 요인이 발생했다.

한시지구 신설로 국장급(3급)으로 직급을 올린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에는 규제해소를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에 공로가 큰 김광목(56) 현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이 승진 임용된다. 시정 혁신과제에 대한 홍보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장급으로 상향된 공보관에는 조경선(57) 현 공보관이 직무대리로 보임된다. 국장급으로 신설된 정책총괄조정관에는 김충찬(39) 미래50년추진과장이 직무대리로 임명된다.

직제개편으로 부대이전과에서 명칭이 바뀐 군부대이전정책과장에는 손강현(43) 부대이전과장이 보임된다. 팀에서 과 단위로 승격된 미군부대이전과장 직무대리는 정규대(53) 군부대이전기획팀장이 맡는다.

원준근(53) 도시건설본부 계획안전과장은 금호강개발과장 직무대리로, 서성철(50) 투자기획팀장은 기업지원과장 직무대리로 임명된다.



김광목

김상우(33) 신청사건립과장 직무대리는 신청사건립과장으로, 박순형(57) 상수도사업본부 생산수질부장 직무대리는 생산수질부장으로 승진 임용된다.

박정국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부장, 한성연 도시건설본부 도시철도기전부장 직무대리는 대구교통공사로 파견된다. 직제개편으로 김대영 투자유치과장은 원스톱기업투자센터 투자유치과장으로 보임됐다. 권건 공보담당관과 이정희 보도담당관도 각각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과 보도담당관으로 보임된다.

김윤기 기자 yoonki@maeil.com

60주년 SINCE 1962
2022 제49회 신라문화제
 SILLA CULTURAL FESTIVAL

화백제전
실�크로드
페스타

신라
아트마켓
달비나장
큰굿놀이
화랑무도회

10.14.FRI — 16.SUN
경주 시내 및 월정교 일원

경주시 | 제경주문화재단

전국노래자랑 달서구편 '첫방' 아니었네

새 진행자 김신영 9월 3일 녹화 뒤에 찍은 하남시편 먼저 편성 제작진 측 "사전에 확정된 일정"

30년 이상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고송해 선생에 이어 개그우먼 김신영 씨로 진행자가 바뀐 KBS '전국노래자랑'의 방송 순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녹화는 대구 달서구에서 가장 먼저 했지만, 방영은 경기 하남시편부터 편성되면서 달서구민들이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 3일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전국노래자랑 달서구편 녹화가 진행됐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온 전국노래자랑은 KBS 1TV에서 매주 일요일 낮 12시 10분부터 1시 20분까지 방영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작고한 송해 선생이 1988년부터 30년 이상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오다 지난 6월 8일 자택에서 세상을 떠나면서 34년간의 동행이 마무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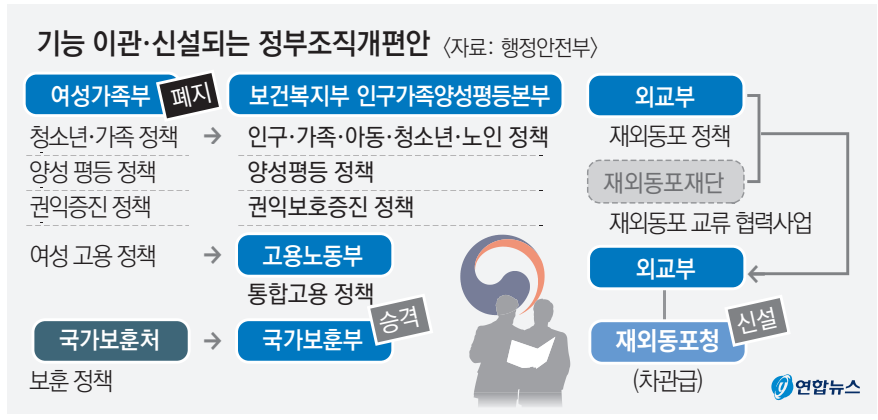
후임 진행자로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지난 8월 발탁됐다. 달서구편 녹화는 바뀐 진행자가 처음 마이크를 잡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녹화 현장에는 시민 3만여 명이 몰리는 등 성황을 이뤘다. 특히 김신영 씨의 고향이 대구임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달서구편이 '대구가 연고인 새 진행자의 첫 방송'이 된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김 씨가 진행을 맡은 뒤 처음 방송되는 전국노래자랑이 달서구편이 아닌 경기도 하남시편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하남시편은 지난달 17일 녹화됐고 오는 16일 방송된다. 달서구편 방영 날

짜는 10월 23일이다. 달서구 주민 A(61) 씨는 "대구는 김신영 씨의 고향이고 송해 선생이 묻힌 곳이라서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에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새 진행자의 첫 방송은 당연히 달서구편이라는 생각에 방송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허탈하다"고 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녹화 당시 10월 23일에 방영된다고 미리 통보를 받았다. 방송국 사정에 따라 편성 일정이 정해지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전국노래자랑 제작진 측은 "달서구편보다 하남시편 녹화분을 먼저 방송하기로 확정된 상태였다. 이런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배주현 기자 pearzoo@maeil.com

“여성 불평등 개선→양성평등으로”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차관보다 상급 본부장이 업무 재외동포청 신설·보훈부 격상 주호영 “국민 약속 野 협조 요청”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6일 확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여가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이후 21년만에 부처 폐지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개편안을 발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여가부 기능 축소 우려에 대해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가족업무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이 여가부 업무를 같이 하고, 차관보다 상위 직급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이 장관과 한 팀을 이룬다. 조직 축소나 격하가 아니고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청(차관급)도 신설한다.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단 등이 나눠하고 있는데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재외동포청 신설로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

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관,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현재 처장은 국무회의 배석·발언권이 있으나 심의·의결권이 없다. 현 국가보훈처는 2017년 차관급에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됐다. 1961년 군사원호청(차관급)으로 출발해 1985년 국가보훈처(장관급)가 됐으며 위상은 차관급 기관과 장관급 기관을 오갔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회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우주항공청’은 연내에 설립방안을 마련해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출입국외주관리청’(가칭)은 의견 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신속 추진을 위해 여당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여가부 폐지에 우려를 표해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대선 공약이었고 국민들과 한 약속이었다.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어떤 조직으로 일할지는 정부 결정에 맡겨주시면 좋다”고 했다.

다만 그는 “여가부 폐지로 인해 성평등 문제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부 당국이 새겨두고 조직개편 과정에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걸로 본다”고 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maeil.com



6일 대구지검에서 최지석 2차장검사가 불법 외화송금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근우 기자

은행직원 가담, ‘김치 프리미엄’ 9천억대 환치기

대구지검 가상화폐 수사 9명 기소

특정 가상화폐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화폐 환치기 수법으로 1조 원에 가까운 외환을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한 일당이 무더기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6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9천348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려 10조원에 이르는 이상(異常) 외환거래를 파악하면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첫 결과물로 향후 다른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불법 외화송금 통한 환치기**
대구지검이 적발한 환치기 조직은 각각 일본·중국 공범들과 연계한 별개의 일당이었지만 범행 방식은 거의 비슷했다. 이들은 특정 가상화폐가 국내 거래소에서 외국 거래소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현상을 악용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다. 공범들이 외국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차명 지갑으로 옮겨주면 이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행동을 반복해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었다.

외국에서 가상 자산 사서 이전 국내 거래소서 팔아 시세 차이

日·中 연계 별개 조직 동일 수법 고급 수입차 구입 등 호화 생활 10조 규모 이상 외화 송금 일부

이후 이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팔아 얻은 현금을 차명계좌로 세탁했고, 미리 만들어 둔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해 해외로 다시 송금했다. 특히 금이나 반도체, 전자 부품 등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 인보이스(송장)를 증빙 자료로 은행에 제출해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일본 연계 조직은 304차례에 걸쳐 4천957억원 상당의 외환을 해외로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조직과 연계된 국내 페이퍼컴퍼니 대표 A(39)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불과 1년 만에 27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고급 수입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의 수익에 대해 추정보전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공범으로 의심되는 일본 회사

관계자인 한국인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턴폴에 적색 수배하는 등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지난 2019년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유사수신·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일본으로 도주해 지명수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연계 조직의 경우 281차례에 걸쳐 4천391억원 상당의 외환을 해외로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국계 한국인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해외 도피가 쉬운 중국 국적자들을 대표로 내세워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특히 수익금은 모두 현금으로 거래해 추적이 어렵게 했다.

검찰은 이들이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236억여원의 범죄수익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5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은행원도 ‘적극 가담’**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국내 시중은행에서 파악한 10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국내 12개 시중은행에서 이뤄진 이상 외화 송금 거래의 전체 규모가 72억2천만 달러(10조1천686억원), 혐의 업체는 82개 사에 달한다는 중간 점검 결과

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현직 은행 직원이 알려진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들 조직의 범행에 모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B(52) 씨에 대해 “은행의 자동 의심거래 경고를 본점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뒤 조직에 이를 피할 방법을 알려줬고, 계좌추적 영장집행 사실도 유출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B씨는 2천400만원의 현금과 상품권 100만원 등을 받았으며, 해당 지점도 외화 거래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 모두 21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해외로 유출된 자금의 사용자 등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중은행 은행원이 1년여 간 수천억원의 외환을 불법 송금하고도 아무 제지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은행의 주·감독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지석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외환관리시스템의 부실과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라며 “지금까지 추정보전한 12억원 가량의 범죄 수익 외에도 추가 환수를 위해 추적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우 기자 gnu@maeil.com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는 법

1인 탑승
안전모 착용
인도주행 금지
음주, 무면허 운전 금지

현장단속 중

경북도청 | 경상북도경찰청

민주당 “민생수사 지연” 한동훈 “검수완박 때문”

여야 국감 곳곳서 공방

여야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열린 3일차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비속어 논란’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선 최근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사·공판부 수사인력 대부분이 정치 수사에 동원돼 그런 것 아니냐”고 따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권 수사를) 해봤는데 지금이 턱없이 적다”며 “별도 수사팀이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 송통신위 국감에선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MBC가 ‘자막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공세를 폈다.

윤두현(경북 경산)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자유는 진실을 알리는 자유이지

방통위에선 ‘尹 비속어’ 쟁점

“잘못 보도” “언론탄압” 팽팽

이재명 정책 지역화폐 도마

양금희 “특정 운영사 배불려”

미군 반환 부지 개방 설전도

거짓말을 하는 자유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공문 발송 등이) MBC에 대한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데, 탄압이 아니라 잘못된 보도를 고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통령실에서 약에 받친 공문을 MBC에 보냈다”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다. 언론을 검열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업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는 정치적 선동이고 실제 현장에서 별 이득이 없다”며 “현금 깡에 불과한데 시대적으로도 지역화폐 필요성

은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도 “지역화폐 운영사 등이 수수료와 이익을 착복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 세금으로 특정 운영사만 배 불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용산 미군 반환 부지 조기 개방에 책정된 예산 483억원을 고리로 공세를 폈다.

장철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용산 미군 반환 부지를 백악관처럼 개방해 시민들이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아직 오염물질 정화작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 개방에 4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정부가 부분 개방 공원용지에 취하고 있는 ‘저감화 조치’는 그냥 오염물질 위에 뚜껑을 덮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환경정화 작업은 부지를 전부 반환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다”며 “공원 조성사업을 일괄 하지 말라 면 철조망을 치고 전부 반환 때까지 출입을 금지하라는 말이나”라고 반박했다. 박영채 기자 pyc@maeil.com



김승겸 합참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현승 위원장(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가운데)과 대화하고 있다.

임병헌 “핵무장” 주장, 합참의장 “정책 변동 없다”

강대식 “TK 신공항법 연내 통과” 김정재 “영일만 대교 건설 협조” 박형수 “계절근로자 관리 대책을”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부분과 핵 정책에 대한 부분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우리 정부와 미국이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면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됐으며 우리도 주권국가로서 자주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보수진영 일각에선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있다. 임 의원의 이날 발언은 원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술 핵 재배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김 의장은 향후 미국 대북 정책이 비핵화에서 핵위기 관리로 선회할 경우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이나는 임 의원의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핵 확장 억지에 대한 정책과 원칙은 확고하게 지켜질 것”이라며 “한미 협력을 강화시키는 가운데 독자적인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대답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강조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통합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급년 말까지 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복합된 특수성이 있고 기부 대 양여의

재원 조달 방식이라 특별법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게 책임 회피와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활주로 길이 3천800m 등 대구시와 경북도의 의견을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는 강 의원의 질의에는 “검토 단계에서 지역 전문가와 지역 대표 등을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은 원 장관에게 ▷영일만 대교 건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 이재민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및 대안 마련 ▷포항~수서 고속열차 운행 등을 위한 협조를 당부해 긍정적인 대답을 끌어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법무부 국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 방안 후속 대책 마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발전 등을 촉구했다.

김병훈 기자 kbh7133@maeil.com

野 “감사원 독립기관 맞나” 與 “민주 정치공세 도 넘어”

민주 “대통령실과 문자 국정농단 사무총장 사퇴·구속 수사 촉구”

여야가 6일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반헌법적 국정 농단으로 규정하고 유 사무총장의 사퇴와 구속 수사까지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을 ‘독립운영 헌법기관’이라고 했지만 헌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격한 국민의 귀에는 ‘유착 운영 부속기관’으로 들릴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열린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선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게 ‘서해 피격사건 감사가 절차 위반’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제대로 해명자료가



문재인 정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

감사원은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가 나갈 예정임을 대통령실에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의 즉각 해임과 함께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까지 촉구했다. 아울러 이를 방조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도 요구하며 국

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반격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감사원을 향한 정치 공세가 정도를 넘고 있다”며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살해당하고 시체까지 유기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반대하며 감사원을 향한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는 민주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감사원 감사에 개입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또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문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파악해 보겠다”며 “어제 기사를 읽었 보기에는 역시 그것도 하나의 정부의 구성이기 때문에 언론 기사에 나온 업무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김병훈 기자



새마을운동중앙회

제26대 곽대훈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시대적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살맛나는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는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

MCD 원장 하태균 외 회원 일동

MCD 1기 수료생 곽대훈

SALE

9.30 - 10.16

EVENT

[30% 할인] 장소 각 층 해당매장

[여성패션] 세루치 / 메지스

[영패션] 핏스튜디오 / 컨버스 / 아디다스 / 리스트(~50%)

[리빙] 로라애슐리 / 씰리(~50%) / 피터리드(~40%) 외

[스포츠] 아레나

[20% 할인] 장소 각 층 해당매장

[남성패션] 킨록앤더슨 / 레노마셔츠 / 지이크 외

[영패션] 커버넛 / 식스앤레더(일부~50%) / 플레이블

[구두] 소다 / 탠디 / 닥스구두 [골프] 3S

[리빙] 알레르망 / 가보건강침대 / 빌레로이앤보흐 외

[유아동] 리틀그라운드 / 쇼콜라 / 에뜨와

REWARD

현대백화점카드 구매고객 혜택

기간 10.7(금) - 10.10(월)

[사은 혜택]

30 / 60만원 이상 구매시 5%

100만원 이상 구매시 10%

사은 상품권 증정 (주머니 적립)

[무이자 할부]

100만원 이상 구매시 6개월 무이자 할부

* 브랜드별 기간 및 할인을 상이합니다.

* 일부 품목 제외, 할인은 최초 판매가 기준입니다.

THE HYUNDAI



La festa

놀러가기 좋은 마음이 풍요로운 계절, 10월
롯데백화점의 신나고 흥겨운 이벤트들과 함께 축제의 기분을 만끽해보세요!



· 대구점·상인점 10월 7일(금) - 10월 10일(월) 오후 8시 30분까지 · 자세한 내용은 롯데백화점 홈페이지·APP·점내 고지물 참조



2022 경북 참 웰니스 페스티벌

2022. 10.7. 금 > 10.10. 월
영주선비세상

주요프로그램

개막행사 웰니스체험(요가) ----- 10.7.(금)
축하공연 | 사운드가든 바이 몽라

체험행사 웰니스 프로그램 (타바타/ 명상/ 필라테스/
한약향주머니 만들기/ 만파식적요가 체험 등)
쿠킹클래스

주요행사 약식동원요리경연대회 ----- 10.7.(금)
경북 웰니스관광 활성화 포럼 ----- 10.7.(금)
웰니스 치유힬링 콘서트 ----- 10.8.(토)
축하공연 | 국민가수 박창근
신인가수 단고은
힙선비클루

부대행사 컬러테라피 강연/ 웰슬립존 / 점핑다이어트
플리마켓/ 경북관광사진 공모전수상작 전시
웰니스 프로그램 특판(라이브커머셜)

공연행사 전통춤과 치유댄스 (사)예락
골굴사 선무도
기공체조(여명)

경북참웰니스페스티벌 공식사이트

wellnessfestival.modoo.at

행사일정 및 프로그램 안내



공식사이트 ↑

입장권 및 상품구매처

www.tour-gb.co.kr

선비세상 입장권 +
웰니스 체험프로그램 판매



구매사이트 ↑

축제기간 선비세상 입장료
3,800원 (성인기준, 온라인 구매시)

주최·주관 경상북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영주시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경상중·영·호남 장계항 문화체험교육원 인원힐링센터 여명



기술의 진보... 현금 없는 사회

직장인 이현진(35) 씨는 휴대전화 배터리 잔량이 10% 미만일 때면 이따금 불안해한다. 중요한 업무 연락을 놓칠까 걱정이...



앱 결제가 열렸다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소매치기가 크게 줄었다.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가 된 것이다. 기술의 진보가 이제는 '현금 없는 사회'를 넘어 '지갑 없는 사회'를 불러오고 있다.

간편 결제는 스마트폰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 은행계좌, 충전한 선불금 등을 비밀번호 입력이나 단말기 접촉과 같은 방법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말 1억5천978만명으로 증가했다. 한 소비자가 여러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중복 집계한 수치이긴 하나 1.4배 가까운 성장이다.

카카오·삼성페이 이용 결제 하루 평균 금액 7천억 이상 서비스 가입자 1억6천만명

는 휴대전화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8월부터 국내 상륙설이 나도는 애플페이도 여기에 속한다.

간편 결제 이용실적이 늘어난 만큼 서비스 가입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간편 결제 서비스 가입자 수 총합은 2019년 말 1억1천228만명에서

이처럼 가입자가 늘면서 간편 결제 사업자 매출액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간편 결제 상위 10개 사업자 총 매출액이 2019년 2조6천567억원에서 지난해 7조7천383억원으로 2.9배 늘었다.

카드·지갑 닫혔다

고 있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홈페이지 방문자 2천87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실물 카드가 없어도 되나?'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반수의 응답자인 1

체크카드 발급량 지속적 감소 이용자 절반 "카드 없어도 돼" 신분증·면허증도 모바일 대체

천536명(53.5%)이 '없어도 된다'고 응답했다. '있어야 한다'고 답한 인원은 1천337명으로 46.5%를 차지, 절반에 약간 못 미쳤다. 이 역시 간편 결제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전업 카드사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다.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 등으로 수익 구조가 좁아진 상태에서 간편 결제 시장까지 뺏기면서 수익성 악화에 고객 이탈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모

여 오픈 페이를 하려는 것도 빅테크가 주도하는 간편 결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면서 "실물 카드 필요성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고객 유인을 위해서는 많은 카드사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물 카드의 퇴장은 또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끼친다. 신분증이다.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은 정부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신분증이 다. 실물 카드처럼 나오는 현행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도 가진다.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는 출생년월, 차를 빌릴 때는 운전 자격 정보만을 제공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진위 확인이 필요하면 검증 앱을 내려받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 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현재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 국가유공자증·주민등록증 등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pyoya@maeil.com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Includes details for various real estate auctions.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Includes details for various real estate auctions.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1. 본지반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각결정기일 : 2022. 10. 28. [금] 14:00 4. 매각장소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제102호 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장에 비치된 기밀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금액,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투입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공고하고,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기일에 확정되면 대금지급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결정기일 확정일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③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기일은 지정된 날의 3일째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미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차등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전격적으로 소멸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등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락서와 지방교부세를 납부한 후 등락서영수증발행인서 및 등락서영수증발행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즉각하여 준다. ③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등권 등이 설정된 날보다 먼저 주된특별권입고를 하고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과동생황을 띤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임차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일까지,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매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장에 비치된 기밀입찰표에 기재된 입찰금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⑤ 입찰보증금에 대한 반환은 입찰금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⑥ 대항권공고 또는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원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결정이나 신청이나 공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승낙변경의 청구권을 할 수 없으며, 관심있는 물권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기재된 매각기일과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사법보좌관 최규태



www.kumho-waterpolis.com



미래첨단산업의 새로운 비전!
김호워터폴리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공급안내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2-131호

1 공급대상 토지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원
- 공급대상토지

공급용도	유치업종	필지수	면적(㎡)	공급가격(원)
산업시설용지 (제조시설용지)	전자정보통신	6	1,602~1,790	2,155,330,000~2,704,690,000
	자동차 및 운송장비	2	1,650	2,242,020,000
	메카트로닉스	9	1,129~2,367	1,579,922,000~3,212,492,000

2 입주가능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중분류)
산업시설용지 (제조시설용지)	전자정보통신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전기 장비 제조업(C28)
	자동차 및 운송장비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메카트로닉스 • 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C27)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단, A10블록(안광학산업 집적지)은 C27193(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재료(해당사업체에서 제조·원료된 제품 또는 위탁 생산한 제품) 제조업체에 한함

3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격
산업시설용지 (제조시설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김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적합한 제조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사)검단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한 자

4 공급일정 및 장소 (*방문접수만 가능)

구분	기간	장소
입주 및 분양 신청 신청예약금 납부	2022.10.17.(월) ~ 10.19.(수) (10:00 ~ 17:00)	대구도시개발공사 (2층 투자상담실)
입주심사	2022.10.24.(월) ~ 10.28.(금)	김호워터폴리스 입주심사위원회
입주(적격)업체 선정결과 발표	2022.10.31.(월) 10:00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www.duco.or.kr)
A10블록(안광학산업 집적지) 필지추첨	2022.11.01.(화) 10:00	대구도시개발공사 (2층 강당)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 체결	2022.11.02.(수) ~ 11.04.(금) (10:00 ~ 17:00)	대구도시개발공사 (2층 투자상담실)

5 대금납부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공급가격의 10% (계약체결 시)	공급가격의 80% (매6개월 단위 4회 균등 분할납부)	공급가격의 10% (별도 통지)

6 공급문의

공급신청 관련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성판매처	☎ (053)350-0332~4
입주심사 관련	대구광역시 신단진흥과	☎ (053)803-6022
입주업종 및 입주계약체결 관련	(사)검단산업단지 관리공단	☎ (053)383-8810~1

*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duco.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053) 350-0332~4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대구도시개발공사
Daegu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웃음 속에 情이 따뜻하다



10월 한국 영화 신작 3편

가을빛이 완연한 10월 첫 주,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한국 영화 세 편이 개봉해 관객을 만난다. 무명 개그맨이 하루아침에 조직의 보스가 되는 '컴백홈'(감독 이연우), 아마추어 풋살 대회에 참가하는 철없는 어른들의 도전기 '선데이리그'(감독 이성일), 중고 거래를 통해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는 '거래완료'(감독 조경호)이다.

컴백홈



개그 프로 폐지...갑자기 조폭 두목 코믹한 스토리에 생각할 거리 선사

'컴백홈'은 신출귀몰 탈주범을 잡으려는 시골형사의 고군분투기를 그린 '거북이 달린다'(2009)의 이연우 감독이 연출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코미디를 넘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스토리와 촘촘한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개그맨이 되겠다는 꿈 하나로 서울에 온 기세(송새벽). 그러나 갑작스러운 프로그램 폐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월세를 못 내 단칸방에서도 쫓겨나고, 거기에 아버지의 부고까지 들고 고향으로 내려온다.

충청도 출신인 기세는 조폭 두목인 아버지 팔출(이경영)과 아픈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칼에 찔려 사망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무덤덤하다. 어린 시절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쫓길 때 먼저 도망가 버린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이었다. 삼촌 강돈(이범수)은 그에게 아버지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보스 자리에 앉으라고 권한다. 며칠 만에 20억 원을 준다는 달콤한 유혹이다.

배우 송새벽이 특유의 나른하고 피곤해 보이는 생활 연기로 기세 역을 잘 연기한다. 지난 주 개봉한 '정직한 후보2'의 라미란이 기세의 첫 사랑으로 나와 재미를 더한다. 기세가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는 신인 개그맨이라는 설정에 따라 김준호, 김지민, 김대희 등 실제 개그맨들이 등장해 실감나는 연기를 선보인다. 좌충우돌 코믹한 스토리에 아버지의 사랑, 이웃과 친구에 대한 정 등을 느끼게 하는 영화이다. 119분. 15세 이상 관람가.

선데이리그



짠내나는 아재들의 풋살 도전기 대학로 연극 배우 실감나는 연기

'선데이리그'는 동네 아재들의 축구 사랑을 유쾌하게 그린 영화다. 만년 비정규직 코치 준일(이성욱)은 '검은독수리'로 불릴 정도로 촉망 받던 축구 유망주였다. 그러나 부상으로 꿈을 접어야 했고, 마흔이 된 이제는 이혼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규직이 돼야 하는 절박함에 내 물린다. 그런 그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찾아온다. 조건은 아마추어 풋살대회 예선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선데이리그'는 짠내 인생들의 꿈과 도전을 그린 영화다. 키 작은 치킨집 사장 최씨(오치운)와 어릴 적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버린 김사장(강영구), 백수에 조울증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박씨(이승연) 등 모두 외롭고 쓸쓸한 인물들이다. 그들이 힘을 모아 험난한 세상의 파도를 이겨나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대학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던 배우들이 캐릭터들을 맡아 낯설지 않은 동네 아재들의 실감 연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 영화 곳곳에 배치된 유머들이 아가자기한 소품들과 어울려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83분. 전체 관람가.

거래완료



중고 거래 통한 낯선 사람들과의 인연 조경호 감독 전세비 털어 첫 장편 데뷔

재해(임승민)는 꿈을 응원하는 가족 사이에서 몰래 쌍둥이팀을 마음에 품고 있다. 쌍둥이팀이 마지막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2002년식 야구점퍼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뜬다. 거래를 위해 잠실에서 만난 아저씨 광성(전석호)은 수상한 구석이 있다. 야구를 너무 좋아하지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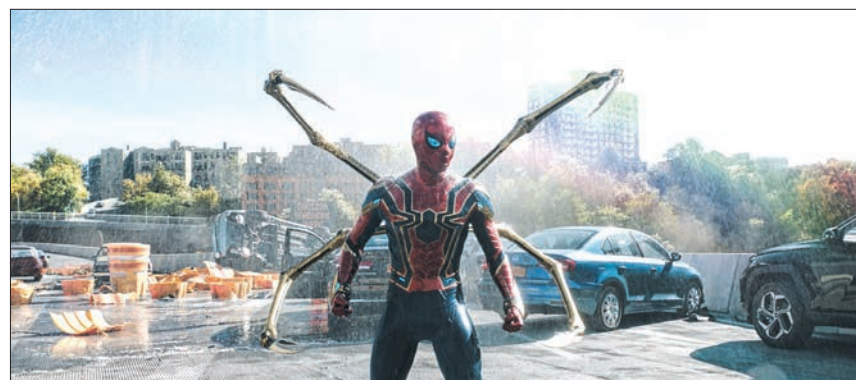
'거래완료'는 현대인이자라면 한 번쯤 해봤을 중고거래를 소재로 한 옴니버스 힐링 무비다. '2002년 베이스볼 재킷'을 비롯해 '스위치', '붉은 방패와 세 개의 별', '사형장으로의 초대', '크리스마스의 선물' 등 총 5편의 에피소드가 중고 거래를 매개로 펼쳐진다.

지금은 중고지만, 한때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추억의 애장품들이었다. 작가 지망생은 아끼던 문학 전집을 팔러 나왔고, 전직 야구선수인 선수 시절 받은 한정판 야구 점퍼를 팔러 나왔다. 비디오테이프 마성전설의 끝판왕이 되는 게 소원이었던 사형수는 레트로 게임기를 중고 거래로 내놓았다. 잠 들고 싶은 재수생과 잠 깨고 싶은 수험생이 서로의 처지를 바꿀 수면유도기를 거래하기 위해 수능 30일 전날 밤 버스정류장에서 만난다.

이처럼 '거래완료'는 아주 낯선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만난다. 그리고 특별한 인연이 된다. 중고거래라는 현실적인 소재를 경쾌하고 따뜻한 판타지로 빚어내는 감독의 진정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조경호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이다. 그는 영화의 꿈을 이루기 위해 7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했다. '거래완료'는 전세방 뺨 돈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120분. 12세 관람가.

새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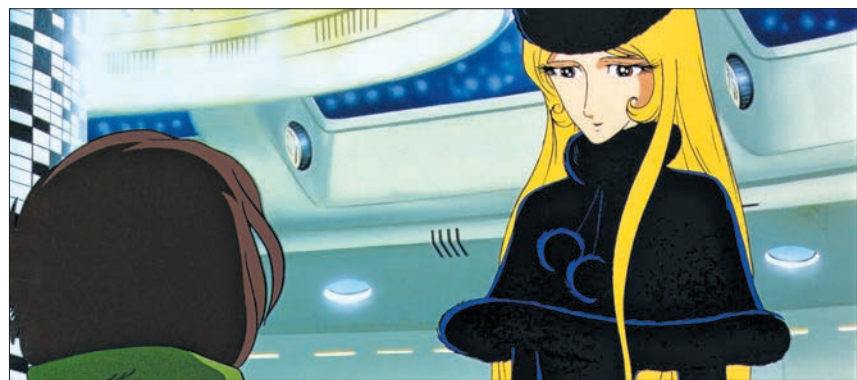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편버전



감독: 존 왓츠
출연: 톰 홀랜드, 베네딕트 컴버배치

미스터리오의 계약으로 정체가 탄로 난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톰 홀랜드)는 평범한 일상을 잃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닥터 스트레인지(베네딕트 컴버배치)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지만 뜻하지 않게 멀티버스(다차원)가 열리며 닥터 옥토퍼스(알프리드 볼리나) 등 각기 다른 차원에 있던 악당들을 만나게 된다. 지난해 12월 개봉해 75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마블의 액션 블록버스터. 미공개 장면이 일부 추가돼 '편버전'이란 제목으로 재개봉했다. 피터 파커가 첫 등교하는 날 피터의 능력을 보여주는 시범 장면 등 기존에 담지 못한 장면이 추가됐다. 초대 스파이더맨인 토비 맥과이어와 앤드류 가필드, 그리고 톰 홀랜드까지 3대의 스파이더맨을 만날 수 있다. 148분. 12세 이상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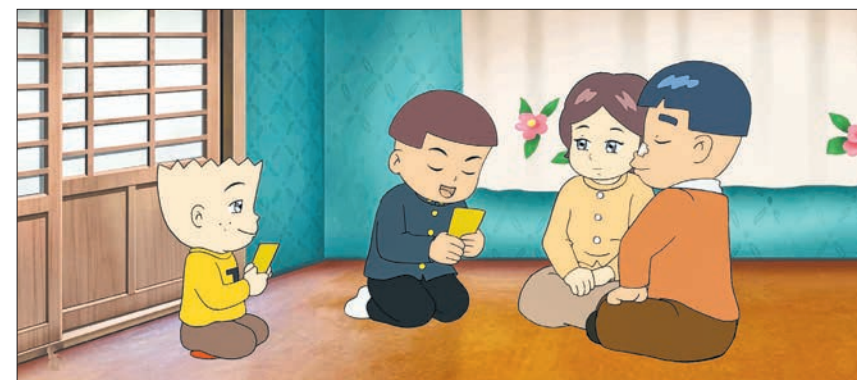
은하철도999-극장판



감독: 린타로
목소리 출연: 노자와 마사코, 이케다 마사코

1979년 제작된 추억의 애니메이션. 인간의 몸을 기계로 바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된 미래. 기계 백작에게 엄마를 잃은 테츠로는 기계 인간이 되어 복수하기로 결심한다. 우연히 신비로운 여인 메텔을 만난 테츠로는 그녀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기계 몸을 무료로 준다는 안드로메다 행성으로 가기 위해 초특급 999호에 오른다. 테츠로는 메텔과 함께 여러 행성을 여행하며 점차 성장하고 꿈에 그리던 초특급 999호의 종착역에 도착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비밀을 마주하게 된다. 1978년 방영된 TV시리즈를 재구성한 형식. 마츠모토 레이지의 동명 만화가 원작. 40년 전 작품을 4K 리마스터링 기술로 캐릭터의 색감 등을 섬세하게 되살렸다. 128분. 12세 이상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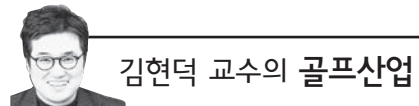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감독: 송요한 송정률
목소리 출연: 박지윤, 오인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 마포구를 배경으로 초등생 기영과 중학생 기철 가족의 일상을 그린 한국 애니메이션이다. 1992년 소년챔프 연재를 시작으로 시즌 4까지 제작 방영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다. 2020년 첫 극장판이 개봉했으며 두 번째 극장판인 '즐거운 나의 집'은 부모님에게 받은 수업료를 다 써버린 기철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짝사랑하는 여학생 숙이에게 잘 보이려던 기철은 수업료를 모두 써버리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지만 뜻하지 않게 서울을 떠나게 되면서 온갖 우여곡절에 휘말리게 된다. 서울 마포에서 종로, 충청도까지 1960년대 우리나라 곳곳을 배경으로 전편 보다 따뜻한 이야기를 그려나간다. 79분. 전체 관람가.

코로나 특수 끝나간다...갑질도 끝이다



김현덕 교수의 골프산업

(2)골프장 황금기 계속될까?

최근 회원권 시세 하락 뚜렷 상업적 이익만 계속 좇으면 MZ세대 골퍼 이탈 볼 보듯 손님 중심 서비스 차별화를

“언제까지 갑질할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내려도 내장객 없어 텅텅 빌 것!”

연간 5천만 명이 전국 골프장을 찾는다. MZ세대의 출현, 연관 산업의 급성장, 회원권 시세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동안 모든 미디어에서 골프 산업에 대해 쏟아내던 키워드들이다. 코로나 통제 상황과 해외 골프를 나가는 데 대한 번거로움에다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른 공급 부족과 수요 과잉으로 인해 골프장이 수년 동안 평평거리리는 동안 내장객들만 냉각기를 알아야 했다. 쉽게 속담으로 얘기하면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게 마련!”

하지만 세상이 영원한 건 없다. 반전의 서막이 보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만 해도 골프장 회원권 가격은 5년 연속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골프장들은 내장객 유치에 ‘손님이 왕’이라는 자제로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막걸리 장터 마당, 조식 포함 패키지, 교통 지원 패키지, 골프+숙박 패키지 등)를 경쟁적으로 펼쳐왔다.



문경 시민에게 30% 그린피 할인 혜택을 주는 문경CC. 지역민에게 가격 할인 혜택을 주는 전략이 이채롭다. 매일신문 DB

이제 다시 고객 중심의 그 시절로 돌아갈 징조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이후 전국의 골프장들은 근시안적 관점의 상업적 목적만 지나치게 추구했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가격에 비해 그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골프장들이 더 많아졌다.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MZ세대를 포함한 골퍼는 분명 다른 대체 레저스포츠 및 문화 활동을 찾아 언젠가 이탈할 수 있다.

해외 골프가 본격화되면 국내 수요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장은

지금부터 경영 방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고객과의 상생을 위한 지속 가능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펼쳐야 할 것이다.

벌써 골프장 회원권 시세 변동 추이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2019년도 대비 2022년도 현재 시세는 60%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 회원권 시세 변동은 7월부터 반곡점을 지나 급격한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거시적 관점의 ESG 경영을 위한 경영자의 노력은 골프장 서비스 차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방향의 지속에는 ‘골프산업 및 선수 육성’이라는 성장동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정부기관, 골프장 경영자들의 장기적 협력은 물론이고, 골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골프의 성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골프의 양적 팽창과 질적 발전을 동시에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골프! Miracle Again!”

계명대 스포츠마케팅학과 교수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원)

투자 수요 이탈 시장 전반 약세 매물 부족 초고가 종목도 하락

10월 1주차 회원권 시장
잘 버티던 영남권도 떨어져
제주·강원·충청권은 보합세

종목들의 낙폭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견고하던 영남권까지 주요 종목들이 하락 내지는 약보합으로 흐르고 있다.

골프장 회원권 시장이 전반적 약세로 돌아섰다. 투자 수요 이탈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시장은 추세적 하락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

이번 주에도 주요 종목들의 시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고점을 갱신하던 에이스회원권 지수(ACEPI)는 지난 6월 1,359포인트(p)를 기록하며 52주 고점을 보인 후에 점차 하락 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결국 1,292.3p(10월 6일 기준)까지 하락하면서 단기 지지선인 1,300p 아래로 떨어졌다.

종목별 동향을 보면, 중·저가 종목들은 물론이고 매물이 부족하던 고가와 초고가 종목들까지 동시다발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주로 수도권의 중저가

이외 제주권과 강원·충청권은 보합세로 시세 방어에 그나마 성공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자산시장의 유동성 축소에 따라 일정 부분의 시세 하락은 예견됐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주식시장의 급락세에 너무 얽매던 나머지 회원권 거래 자체가 거의 뇌동 매매(마비 상태) 수준으로 돌아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저가 종목들은 고점 매물이 한동안 누적될 수도 있으나, 수급 여건상 초고가 종목들은 일부 급매물이 사라지면 적은 매수 주문에도 호가 급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현균 회원권 매널리스트 lhk@acegolf.com

골프장명	영남·제주권			
	출수	전주 시세	금주 시세	증감
가야 우대	36	18,000	17,800	-200
경주신라 주주	36	15,700	15,700	0
대구	27	16,100	16,100	0
동래베네스트	18	19,200	19,000	-200
동부산	27	30,500	30,500	0
마우나오션	18	13,800	13,800	0
보라	27	67,000	67,000	0
부산	18	40,500	40,500	0
선산	18	10,700	10,500	-200
아시아드	27	52,000	52,000	0
에이원	27	41,000	40,000	-1,000
오라	36	11,200	11,200	0
용원	27	9,000	9,000	0
울산	18	27,000	27,000	0
정산	18	60,000	60,000	0
진주	18	7,000	7,000	0
창원	18	14,500	14,500	0
캐슬렉스제주	27	2,700	2,700	0
크라온	18	5,700	5,700	0
통도파인리스트	18	8,600	8,600	0
파미힐스	18	22,000	21,000	-1,000
팔공	18	7,700	7,500	-200
핀크스 1차	27	48,500	48,500	0
해운대	27	15,000	15,000	0

자료 제공: (주)에이스회원권

해저드 익사사고, 캐디 잘못?...법조계 의견 분분

경찰, 위험성 경고 안 해 입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
필드 건축물로 볼 수 있나 쟁점

골프장에서 해저드에 공을 주우러 간 내장객이 물에 빠져 죽었다면, 그 담당 캐디는 어디까지 처벌받아야 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년 전에도 경북 정도의 한 골프장에서 한 내장객이 해저드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있었으며, 올해 4월에도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한

여성 이용객이 공을 찾으러 갔다가 연못에 빠져 운명을 달리했다. 캐디와 동반자들은 뒤늦게 주변의 구멍 튜브를 던지는 등 구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올해 4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당시 경기보조원(캐디)을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했다. 골프장 안전담당자도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했다. 게다가 공중이용시설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중

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하는지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캐디들의 경우에는 안전사고 지참 전달 소홀로 인해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클럽 하우스는 건축물일 수 있지만 필드는 건

축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으며, 각각의 안전사고마다 면책 사유들이 많아 일괄적 법 적용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골프장에서 보다 소극적인 방어보다 적극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한편, 골프장들은 최근 해저드 사망사고 및 카드 전복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라운드 전에 안전사고에 대해 태블릿 PC로 이용객들에게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책임 여부에 대한 서명도 받고 있다.

권성훈 기자 cdrom@imaeil.com

전문병원 제도는 국민건강과 행복을 돕고 있습니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 체계화된 진료시스템 =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기간: 2021. 01. 01. - 2023. 12. 31.

제4기 1차년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나노도 높은 치료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분야	기관명칭	주소·전화번호
뇌혈관질환 대구·경북 뇌혈관질환 전문병원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굿모닝병원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대구 남구 성당로 224 (대명동) ☎053)620-9100
척추 보건복지부 척추전문병원 4회 연속 지정	우리들병원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일반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	대구 중구 국제보상로 648 ☎ 053)212-3000
척추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참조은병원 신경외과, 정형외과, 척추관절중센터, 마취통증의학과, 내과, 영상의학과	대구 달서구 월배로 404 ☎ 053)630-8000
화상 4회 연속 대구·경북 화상전문병원 지정	푸른병원 화상외과, 내과, 정형외과, 유방·갑상선외과, 마취과	대구 중구 태평로 102 ☎053)471-2800



전문병원 지정현황

포항시의회-한은 태풍 복구 간담회



경북 포항시의회와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5일 태풍 '한남'로 피해를 입은 지역 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 및 각 위원장들은 이윤성 한국은행 포항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의 태풍 피해 현황 및 철강공단 등 기업 분야 피해 상황과 피해 기업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조속한 지역 산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의회는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태풍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규모를 증액하며 태풍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대출 조건을 완화해 대출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은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협력의 중심이 돼 피해 복구 지원에 힘써 주기를 바라며 시의회도 여러 채널을 통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우 기자 sdw@imaeil.com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취임



김학홍 신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취임 첫날인 6일 취임식을 생략한 채 태풍 피해를 입은 포스코와 포항 주민을 찾는 등 민생 챙기기 일로 업무를 시작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한남 태풍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과 도민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곧장 포항 피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첫 행선지로 포스코를 방문했다. 회사 관계자를 만나 태풍 피해 현황과 생산 차질에 따른 협력업체·기간산업 악영향에 대해 들었다. 이어 포항 남구 오전읍 태풍 피해 마을에서 주민들과 대화한 뒤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홍준현 기자

장성우 연연초생산조합 중앙회장



장성우(56) 경북연연초생산협동조합 조합장이 연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장에 당선됐다. 경북연연초조합은 예전 영덕·청송·영양 지역 조합이 합병해 운영되고 있는 조합이다.

장 중앙회장은 지난달 29일 선거에서 당선돼 이달 12일 대전의 연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취임식을 가진다. 임기는 4년, 재선까지 가능하다.

장 중앙회장은 영덕 창수면 출신으로 포항고등학교와 선린대학교를 졸업했다. 귀향한 후 20년 가까이 연연초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 dhkim@imaeil.com

“재능기부·문화공연...자원봉사로 '파워풀 대구' 함께해요”

내일 대구자원봉사박람회

3년 만에 두류공원에서 대면행사 기후변화·재난 등 60개 부스

첫 활동 100명 선착순 사은품 행사장 체험 청소년 2시간 인증

대구시가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확산 및 정보 교류의 장으로 마련하는 대구자원봉사박람회가 8일 3년 만에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대면 행사로 열린다.

2006년 시작해 16회째를 맞는 대구자원봉사박람회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시·구·군 자원봉사센터와 대구기업자원봉사협회가 주관하는 민관 협력 행사다.

올해 행사는 '뉴노멀 시대, 자원봉사로 파워풀 대구'라는 슬로건 아래 비대면 확산과 기후 위기 등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환경에서 자원봉사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고, 자



올해 16회째를 맞는 대구자원봉사박람회가 8일 3년 만에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대면 행사로 열린다. 매일신문 DB

원봉사의 힘으로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하고자 교류와 참여의 장으로 마련했다.

자원봉사 등록 및 상담, 기후위기·온라인·재난 자원봉사 체험, 기업 자원봉사 홍보 등과 관련한 60개 부스가 차려진다. 재능기부

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장상목 위원장 “공직사회 불합리한 제도 바꾸겠다”

경북공무원노조 2대 위원장 취임

“하위직 합당한 대우 받도록 노력 약의적 정보공개 청구 소송 불사”

“2만 경북 공무원의 위상을 드높이고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노조의 역량 및 조직을 강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장상목(53)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경공노) 2대 위원장이 지난 1일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장 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격무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면서 “합당한 대우를 통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전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부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약의적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민·형사 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5, 6급 장기교육 개선과 시군 교육인원 확대 배정, 출장 및 초과근무 제도 개



선 등에 대해 전국 단위 노조와 연대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경북도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가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권 독립을 이뤄낼 것”이라며 “경북도 승진자의 순환 보직 자리로 이용되고 있는 인사의 부당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 공직사회에서도 만연하고 있다. 부당한 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모든 조합원들과 힘을 모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울진 출신인 장 위원장은 1997년 시절직 9급으로 울진에서 공직을 시작, 현재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7급으로 울진군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상원 기자 seagull@imaeil.com

인물 수첩

이상훈 대구보훈병원 병원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삼) 대구보훈병원은 4일 이상훈 제12대 대구보훈병원 신임 병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 직원과 지역 유관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감삼 이사장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신임 병원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4



년간 대구보훈병원을 지내며 ▷특성 진료 분야 집중 육성 ▷난증 환자를 위한 인공 와우 시술 등 청각 재활 전문화 ▷보훈병원 최초 방문 호스피스 도입 등을 추진해 보훈 의료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임기는 2025년 9월 30일까지다.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



출범 500일을 맞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비전 선포식과 정책 세미나를 열고 자치경찰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시민중심, 시민안전...창의적인 자치경찰 활동”

대구 자치경찰위 비전 선포·세미나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일 대구삼성창조점 패스 중앙컨벤션센터에서 ‘대구형 자치경찰 비전 선포식 및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500일을 맞아 ‘시민중심, 시민안전, 대구 자치경찰’이라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비전을 알리고, 자치경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과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김남현 대구경찰청장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비전 선포식에서는 설용숙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내빈 축사, 자치경찰 발전 유공자 표창과 비전 선포 퍼포먼스가 펼쳐졌으며, 이어진 정책 세미나에서는 박동균 자

치경찰위 사무국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자치경찰 및 여성 분야 전문가, 언론인, 시민경찰대장과 자치경찰 일선 경찰관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설용숙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지역 치안 수요와 특성을 맞는 창의적인 자치경찰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해 5월 20일 출범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를 운영해 시민 참여 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거 안전 취약 가구 셰어하우스 지원 사업과 범죄 취약 지역 셉테드 사업 등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오늘의 운세 10월 7일(음력 9월 12일) 더사주 인스타그램 제공

A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corresponding animal icons and horoscope text for each sign.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환경과 제도적 지원



KBS1 '다큐 온' 오후 10시 50분

7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되는 KBS 1TV '다큐 온'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적인 지원을 알아본다.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을 향상하고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려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치매전담형 요양기관은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캐나다에 사는 치매 환자 딸나 놀란 씨는 14년 전 치매를 진단받았지

만 지역사회에서 전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 알츠하이머협회 활동에 참여하고, 치매 환자 가족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 치매 환자도 지역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놀란 씨의 노력으로 치매 환자, 장애인을 위한 계산대가 따로 생겼기도 했다. 치매 환자임을 알리는 메모를 옷에 붙이고 다니는 그녀를 통해 사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cpbc 가비아 노을자 오후 2시 5:00 930 MBC 뉴스 5:00 930 MBC 뉴스 5:00 930 MBC 뉴스 5:00 930 MBC 뉴스

오늘의 역사

1849년 10월 7일 에드거 앨런 포 사망

미국의 시인이자 단편 소설가이자 비평가이며 미국 낭만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에드거 앨런 포가 불과 40세에 노상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그는 괴기소설과 시로 유명하며, 미국에서 단편소설 개척자이자 고딕소설, 추리소설, 범죄소설의 선구적 천재였으나 살아생전 궁핍, 음주, 도박, 광기, 마약, 우울증 등으로 매우 불운한 삶을 살았다. 그의 사망 원인은 최후의 미스터리이며 정확한 묘지의 위치조차도 논쟁거리다.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tlight@naver.com



TV 프로그램

Table with TV program schedules for KBS1, KBS2, MBC, TBC/SBS, and EBS1. Columns include channel, time, and program name.

• KBS 053/757-7321 • MBC 053/740-9500 • TBC 053/760-2000 • EBS1 1588-1580

Weather forecast for today and 5-day outlook. Includes a map of Korea with regional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 ranges.

케이블·위성TV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2-735-6511 • 스키라이프 1588-3002 • (주)이피지 02)569-5995

Table with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 lineups for various networks like SBS, MBC, KBS, EBS, etc.

Medical services advertisement for 'Nighttime安心' (밤에도 안심하세요) - 야간진료 병원. Lists various hospital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작명전문' (Professional Naming) by '크리름' (Creem). Includes a photo of a man and contact information.



임언미의 찬란한 예술의 기억

아동문학가 윤복진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의 시간

오랜 시간 속에 잊었던 보물 보따리를 하나 연었다. 세상에 하나뿐인 보따리다. 그 보따리 안에는 대한민국 문화계를 발칵 뒤집을 만한 보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최근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아동문학가 윤복진과 근대기 예술 자료들이 그 보물 보따리다.

윤복진은 박태준, 이인성과 함께 늘 문화예술사에서 회자돼 왔던 인물이지만, 윗배는 이유로 자료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유족이 멈춰진 윤복진의 시간을 외롭게 지키고 있었다.

보물 보따리에는 윤복진의 친필뿐만 아니라, 작곡가 박태준과 홍난파, 현제명 등 음악인들의 자료들, 화가 이인성과 무영당 창업주 이근무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들, 전국적으로 이름난 주요 예술인들의 팸플릿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윤복진이 대구만의 인물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대구가 근대기에도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귀한 자료다.

일본 현대무용의 창시자인 이시이 바쿠의 대구 공연 프로그램, 영화감독 이규환이 해방 후 최초로 발표한 장편영화 <똥똥이의 모험>의 시나리오와 관련 신문 기사를 보면 윤복진이 문

학과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무용 등 예술 전반에 조예가 깊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대 소년 문예운동을 함께한 윤복진과 윤석중, 신고송, 서덕출, 최순애와 이원수 등 전국적 소년 문인들의 인연은 얼마나 각별할까. 윤복진이 조선일보 필자로 활동하던 즈음 이육사 시인이 기자로 활동했다.

잊혔던 대구 근대기 보물 보따리

이상화 시인이 윤복진을 만나러 무영당백화점을 드나들었다는 기록도 있다. 1930년대 무영당백화점 약기부에 모인 청년 이근무와 박태준, 윤복진, 이인성, 김용조 그리고 그들을 만나러 대구를 찾은 홍난파가 어울리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4대 독자였던 윤복진은 6·25전쟁기 월북하면서 고향 대구에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세 명의 딸들을 남겼다. 떠나는 발걸음이 가벼웠을 리 없다. 고향에 남은 가족들은 일평생 거주지를 옮기지 않았고, 늘 대문을 열어놓고 지냈다.

굴곡진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월북한 가족을 둔 사람들의 일상이 어땠을지는 짐작할



1930년 4월 왼쪽부터 이근무, 윤복진, 이인성(유족 소장 사진).

수조차 없다.

아들이 그림고 걱정될 때마다 아들의 책을 태우며 시간을 보냈다는 어머니의 마음, 모두를 두고 떠나버린 남편을 생각하는 아내, 어린

시절 헤어진 탓에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야기로만 전해 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바라보는 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딸은 자신이 일흔을 넘기 고서야 아버지가 진심으로 그리워했다고 했다.

예술혼 제대로 조명되고 기억되길

10년 전 TBC가 제작한 라디오 다큐멘터리 <물새발자욱>을 통해 윤복진 유족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몇몇 연구자들이 그를 찾아갔다. 윤복진의 따님은 보자기로 조심스럽게 쓴 자료들을 펼칠 때마다 큰 관심을 보이는 연구자들을 보며, 아버지의 예술 세계가 관심을 받고 있음에 기뻐했다. 그런데 자료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다시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2년 전, 처음 연락을 했을 때는 호의적이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는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기획·진행했던 TBC 김도휘 아나운서의 도움이 컸다. 유족이 자료에 대한 기증 의사를 밝혀오기 직전에 망설이던 마음을 굳히게 해준 것도 김 아나운서의 전화 한

통이었다.

어렵게 지켜낸 자료를 대구시 아카이브로 떠나보내는 유족의 부탁은 아버지 윤복진이 제대로 조명되고 기억되길 바란다는 것뿐이었다. 이제 일제강점기 우리말로 된 노래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일깨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윤복진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빛을 볼 수 있도록 힘을 일만 남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대구가 각별한 예술혼의 도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딸이 외롭게, 오랫동안 지켜온 아버지의 보따리를 문화계가 함께 풀어 그 의미를 공유했으면 한다. 윤복진의 따님 덕분에 대구의 근대 문화예술사가 한 뼘쯤 깊어졌다. 결국 예술사를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문화예술인 이외에도 그를 기억하는 가족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누군가의 보물 보따리가 유족의 품에서 빛바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그 보물을 세상 밖으로 꺼내 빛을 보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몫이다. 유족의 슬픔과 그리움까지 감싸 안아 진정 그 예술가를 빛나게 하는 것까지 말이다. 대구시 문화예술아카이브팀장·대구문화 편집장

그림습니다 🍇

김선표(진명복지재단 이사장) 씨의 아버지 고 김규혁 씨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신 아버지께.

이번 기회에 아버지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며 ‘아들로서 아버지께 올리는 편지 첫머리를 쓴다면 어떤 표현이 가장 좋을까’를 생각해 보니 위와 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삶은 저희 6남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습니다. 가끔 자식들의 양쪽 관자놀이를 손바닥으로 눌러 잡고는 반씩 들어올리며 “넓은 세상을 보라”고 하셨던 아버지. 그 덕분인지 저를 비롯해 형님과 네 동생 모두 넓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포항, 경주 등 여러 곳을 다니며 목수로 일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52세가 되던 해에 뇌출혈로 쓰러지시기 전까지 정말 6남매를 키우느라 항상 열심히 일하셨었지요. 예전 도구해수욕장 옆 ‘도구교회’ 공사를 맡아 하실 때 아버지가 일하시던 현장에 갔던 기억이 문득 납니다. 그때 아버지는 가족들을 불러서 현장을 보여주시곤 했었지요. 중학생이던 저는 아버지를 도와드리기도 했었죠.

또 아버지가 한창 일하실 때 저와 동생들은 큰



김선표(왼쪽 첫 번째) 진명복지재단 이사장이 가족과 함께한 여행에서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오른쪽 두 번째가 김 이사장의 아버지 고 김규혁 씨.

처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며 백합을 잡아 삶아서 먹고 놀았던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자식들은 소중한 추억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느끼던 것도 잠시, 아버지가 쓰

러지고 나서는 집안도 힘겨워졌습니다. 하필 형은 군대에 있어서 제가 어찌 보면 실질적인 가장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많이 막막하고 힘들었지만 그 시련 덕분에 제가 강하게 커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과 아버지가 제

준 유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삶에 감동을 느낀 건 쓰러지신 이후 돌아가실 때까지 보여주셨던 기독교 신앙에 충실했던 모습들을 보면서였습니다. 늘 아버지는 사랑을 사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전도를 해 오셨었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돌아가시기 전까지 대구에서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교회로 지금은 없어진 ‘비둘기호’를 타고 예배를 하러 가셨던 모습이 크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기억이 있어요. 전도를 위해 준비한 사랑이 떨어졌는데 “안강에 있는 교회 앞 가게에서 사야 한다”며 제 손을 이끌고 대구에서 경주 안강까지 갔던 일어요. 처음에는 ‘동네에서도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랑인데 왜 굳이 교회 앞으로 가자고 하셨을까’ 궁금했지만 아버지께서 전도하신 같은 교인이었던 가게 주인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같은 신앙을 믿는 사람과의 유대 관계를 더 끈끈히 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신앙을 통한 정신적 성장을 더 원하셨고, 그런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큰 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신실했던 아버지 덕

‘그림습니다’ 사연 이렇게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매일신문이 함께 나눕니다.

- 분량: 200자 원고지 8매, 고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 1~2장
- 문의 전화: 053-251-1580

•사연 신청 방법
<http://a.imaeil.com/ev3/Thememory/1ongletter.html> 혹은 매일신문 홈페이지 '매일신문 추모관' 배너 클릭 후 '추모관 신청서' 링크 클릭

이메일 missyou@imaeil.com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매일신문 그림습니다' 검색 후 사연 올림

분인지 저희 6남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올바른 모습으로 성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 아버지가 남긴 믿음의 유산 덕분입니다.

요즘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의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셨다면 어떤 답을 주셨을지 늘 고민하지만 만족할 만한 해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 꿈이라도 나타나서 방법을 알려 주시기를, 그렇게라도 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저희를 살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Grand concert

2022

웅도경북

그랜드콘서트



정미애



알리



최성수



튜에도



배금성

경북도청동락관

2022.10.25(화) 7PM

티켓 공연 당일 오후 5시부터 선착순 배부 (1인 2매)
 주최 주관 매일신문 후원 경상북도 문의 053)251-1413

뉴노멀 시대의 자원봉사 문화

기고



정연욱
대구시자원봉사센터장

한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춤했던 지역 축제가 풍성하게 개최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으로 요양 병원에 계시는 부모님과 유리창을 통한 면회나 영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였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은 온라인이 병행되었으며, 먹거리 또한 다양한 배달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더욱 다양해지는 등 불과 3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이는 내가 원하던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를 통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배분되는 초연결시대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 현장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 자원봉사 활동보다는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세분화되고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돌봄 소외계층을 위한 문제해결형 자원봉사 활동을 넘어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협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성이 강화되고 있다.

뉴노멀 시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시민들은 누가 있을까. 우리 지역에는 어떤 기관·단체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을까.

궁금하다면, 8일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리는 제16회 대구자원봉사박람회 통해 경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구·군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사업과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수상자·자원봉사 사진전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메타버스주제관부터,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비누 만들기·양말목 키링 만들기·병뚜껑 모으기·폐의약품의 올바른 처리 방법 안내 등을 주제로 한 기후대응자원봉사관, 더위 지도 앱·플로깅·대구자원봉사 온라인 채널 소개 등의 온라인자원봉사관, 재난 현장 무선 장비부터 압박 붕대 응급 처치·재난 차량 체험까지 가능한 재난자원봉사관, 에코백 만들기·ESG 알아보기 등의 기업관까지 총 60여 개의 자원봉사 기관·단체와 함께 자원봉사 이야기를 풀어가게 된다.

또한 개막식 이후 오후 3시부터는 다 함께 두류공원을 한 바퀴 도는 자원봉사 걷기 행사를 통해 1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여울길을 따라 걸으며 재능 공연과 포토존, 사진 전시 등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 밖에도 2022년도 첫 번째 자원봉사 활동으로 대구자원봉사박람회에 참여하는 시민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이벤트 사은품 증정과 더불어 현장 자원봉사 활동 참여 시 청소년은 2시간, 성인은 1시간의 자원봉사 활동 시간 기록을 받을 수 있다.

뉴노멀 시대, 자원봉사 활동은 언제,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이번 16회 대구 자원봉사박람회 현장에서 다변화된 자원봉사 현장을 경험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보다 파워풀한 대구 시민들로서 대구자원봉사 문화 조성에 함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코로나19로 잠시 자원봉사 활동을 멈추었다면, 10월 가족·친구·지인 간의 나들이를 계획 중이라면 8일 두류공원에서 자원봉사사와의 인연을 이어가길 바란다.

숙맥의 난

(菽麥) (亂)

춘추칼럼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

콩·보리 구별 못하는 숙맥들의 세상
분별해야 할 언론 기쁨 붓고 부추겨

각종 권력 그 위에서 난세 즐기는 중
침묵파로 살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숙맥(菽麥)이라고 한다. 숙(菽)은 콩이고, 맥(麥)은 보리다. 크기로 보나 모양으로 보나 확연히 다른 곡식인데, 눈으로 직접 보고도 분별하지 못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렇게 콩과 보리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숙맥!'이라고 욕하기도 한다. 숙맥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콩과 보리뿐이겠는가. 상식과 비정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욕과 평상어를 구별하지 못하며,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해를 보고 달이라 하고 달을 보고 해라고 하면, 낮과 밤이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진시황제가 죽고 2세인 호해(胡亥)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의 곁에는 환관인 조고(趙高)가 있었다. 간신 조고는 진시황제의 가장 우둔한 아들 호해를 황제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였다. 조고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조정 신하들의 마음을 시험하기로 하였다. 그러고는 신하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사슴(鹿)을 호해에게 바치며 말(馬)이라고 하였다. 호해가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가?"라고 하자, 조고는 신하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

신하들은 세 부류로 나뉘었다. 한 부류는 침묵파였다. 분명 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잘못 말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침묵을 선택한 부류였다. 또 한 부류는 '사슴파'였다. 분명 말이 아니었기에 목숨을 걸고 사슴이라고 정직하게 대답한 신하들이었다. 마지막 한 부류는 '숙맥파'였다. 분명 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슴이라고 하는 순간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에 사슴과 말도 구별하지 못하는 숙맥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선택의 결과는 자명했다. 사슴파는 조고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숙맥파는 조고의 총애를 얻어 더욱 높은 대우를 받고 벼슬을 얻었다. 침묵파는 목숨은 건졌지만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두문불출하였다. 바야흐로 숙맥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거짓이 진실을 영원히 가리지 못하는 법, 숙맥의 시대는 채 몇 년도 가지 못하였다. 더는 숙맥으로 살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봉기하여 결국 진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초나라와 한나라의 목숨을 건 한판 대결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 '진시황 본기'에 전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고사가 나온 배경이다.

이성이 침묵하고, 거짓이 참이 되고, 변명이 사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숙맥의 시대라 하고, 이런 시대를 숙맥의 난(亂)이라고 정의한다. 숙맥의 난맥상은 그 어떤 혼란의 시대보다 폐해가 크다. 상식은 몰락하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하는 도술(道術)이 성행한다. 이런 도술을 부리며 세상 사람들을 홀리는 사이버 도사들이 숙맥의 시대에는 주류가 된다. 흑세무민(惑世誣民)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주머니를 터는 일이 능력으로 인정된다. 숙맥과 교주들은 분별력을 잃은 숙맥들을 이끌고 허무맹랑(虛無孟浪)한 말로 사람들을 부추겨 그들의 잇속을 쟁긴다. 이미 쪼머가 된 숙맥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교주들의 구호에 맞춰 절규하고 거품을 물고 욕을 해댄다. 이념이 사람을 잡아먹고, 관념이 현실을 가린 숙맥의 난이 펼쳐지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인류의 역사는 늘 숙맥의 난(亂)으로 들끓었다. 종교가 인간 위에 군림하던 서양의 암흑시대에는 르네상스가 인간의 이성을 기치로 숙맥의 난과 대결하였다. 동양에는 적멸(寂滅)의 전도(轉倒)된 세상을 바로 세우고자 실학으로 무장한 원탁의 기사들이 종횡무진 활약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숙맥이 되어 새로운 숙맥의 세상을 만들었다. 진실은 호모사피엔스에게는 너무 과분한 이상이었기 때문일까.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숙맥의 난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숙(菽)과 맥(麥)을 분별해야 할 언론과 권력기관은 숙맥의 시대에 기쁨을 부으며 부추기고 있고, 각종 권력은 그 위에서 마음껏 난세를 즐기고 있다. 콩과 보리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숙맥의 세상을 침묵파로 살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다.

김경수의 每日 時評

질주마들에게 씌워진 발주악법 눈가리개!



관공루
觀風樓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아버지의 MBTI 성격 유형검사 해 보니 ISTP, 즉 '거장'(Virtuoso)으로 나왔다" 글 올려. 아itto 싶다면 아버지와 딸이 국민 혈압 올리는 방식도 가지가지.

○...국감에 출석한 김승겸 합참의장,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 및 미흡한 후속 대처에 대해 사과. 군 골프장에 떨어졌기에 망정이지 민가나 북한 쪽에 떨어졌더라면 어쩔 뻔.

○...필리핀에서 로또 1등 당첨자가 433명 나와 조작설마저 술술. 1등 당첨자가 이리 많이 나올 확률은 0.1의 1천224제곱 수준이라는데 세상이 넓다 보니 요지경 같은 일들 속출.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Maeil Shinmu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MBC, TBC TV방영

43년 전통

운명을 알고 미래를 설계하면 실패가 없다

▶ 신생아 이름, 상호, 아호, 연예인 이름, 회사명, 개명 전문 ◀

특별작명

NAVER 대구백운철학관

dail 대구백운철학관

을 검색해 보세요!

이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먼거리에 계신 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반액으로 잘지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역학인 협회 회장

사주 / 궁합 / 사업운 / 변동운 / 취직운 / 시험 / 사성 택일 / 혼인문제 / 이름 / 애인관계 / 부부운 / 부부갈등 / 결혼 / 이혼 / 삼각관계 갈등에 해대는 분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주간
야간
철학

명리
개인지도
속성만
2개월 완성 후 개업

위치: 대구 달성공원 정문앞

백운철학

세상만사 힘들고 어려우시면 무엇이든 한번 물어보세요

휴대폰: 010-2002-8833 TEL: 053-567-5577

www.mgapple.or.kr

온라인 스토어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

2022 문경사과축제

2022. 10. 15.(토) ~ 30.(일) 16일간
문경새재야외공연장/옛길박물관 앞

주최 | 문경사과축제추진위원회

주관 |  문경문화관광재단

후원 |  문경시

협찬 |  NH 농협문경시지부

 DGB대구은행

 대구경북농협

 문경농협

 문경사과발전협의회